

전남 전국체전 레슬링 경기 다른 지역서 열리나

함평군청 레슬링팀 해체 시골 팀 부재 함평 개최 부적합 지적 레슬링협회 “원만하게 해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2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레슬링 경기 장소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전국체전 레슬링 경기는 함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나 최근 함평군청 레슬링팀이 갑작스럽게 해체된 이후 대한레슬링협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다른 지역으로 경기 장소를 옮기자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어 전남도체육회가 상황을 파악중이다.

4일 전남도체육회와 대한레슬링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월 전남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 레슬링 경기장소는 함평

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전부터 함평이 레슬링 개최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숙박 문제 때문이다. 전국체전 레슬링 선수단은 2,000여명인데 함평은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동안 국가대표 선발전 등 레슬링 전국 대회가 함평에서 열리기도 했으나 이 때는 단일종목의 대회여서 인근 무안이나 나주 등의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국체전은 상황이 다르다. 나주에서는 사격, 롤러, 자전거, 스쿼시가 열리고 무안도 핸드볼 경기가 진행된다. 인근 지역에서 숙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 2008년 전남 전국체전 개최 당시에도 레슬링 선수단은 광주에 체류하면서 함평을 오가며 경기를 치러야 했다.

레슬링은 계체를 해야하는 종목이기에 선수들이 매우 예민한데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것은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 레슬링 관계자들의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레슬링협회가 함평에서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동의했던 이유는 레슬링 육성팀인 함평학다리고와 함평군청 실업팀이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실업팀이 있는 지역에서 전국체전을 치러야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성적 부진을 이유로 함평군청 레슬링팀의 해체가 결정되면서 레슬링계가 시끄럽다. 어렵게 재창단된 팀이 다시 해체된데다, 해체과정이 급작스럽게 진행되면서 소속 선수 4명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레슬링협회 관계자들 사이에서 전국체전 장소를 함평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대한레슬링협회 한 관계자는 “함평은 전국체전 경기를 치르기에 불편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전을 치르는 것에 반대

하지 않은 것은 실업팀이 있기 때문인데 이렇게 팀이 해체되고 선수들도 갈 곳을 잃은 판에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함평에서 전국체전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며 “다른 지역에서 체전을 치르는 방향을 생각해보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체육회도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그 전부터 숙박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레슬링협회측의 요청이 있었는데 최근 함평군청 레슬링팀이 해체되자 체전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들어서 상황을 파악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말 김영록 전남도지사님이 지역에서 육성한 선수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되겠느냐며 전남의 실업팀으로 연계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한 상황인데 함평군청 실업팀이 해체돼 당혹스럽다”면서 “대한레슬링협회에서 체전 장소 변경

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대한레슬링협회가 전국체전 레슬링 장소를 함평이 아닌 다른 장소로 변경한다면, 전남 22개 시·군중 함평만 유일하게 전국체전 경기가 열리지 않는 지역이 된다. 이번 체전에서 타 지역 개최 종목은 양궁(광주)과 승마(장수), 근대5종 승마(문경) 뿐이다.

대한레슬링협회 김연만 사무처장은 “숙박 문제 때문에 함평에서 전국체전을 치르는 것은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함평군청 레슬링팀 해체 소식이 들렸고 그러자 체전 장소를 굳이 함평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이라며 “팀 해체 소식과 체전 장소 변경 제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협회에서는 전남도, 함평군과 논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임성재가 4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의 카팔루아 플랜테이션 코스에서 열린 PGA 투어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연습라운드에서 샷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김주형, 새해 첫 대회 스피스와 1R 같은 조

임성재는 호마와 경기

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2승을 따내며 올해 가장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으로 떠오른 김주형(21)이 새해 첫 대회 첫날 통산 13승의 조던 스피스(미국)와 함께 경기한다.

4일(한국시간) 발표된 PGA 투어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1,500만 달러) 1라운드 조 편성에 따르면 김주형은 스피스와 같은 조로 6일 오전 7시 25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섬 카팔루아의 카팔루아 플랜테이션 코스에서 대회를 시작한다.

지난해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PGA 투어에 정식으로 입성하고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도 제패

한 김주형은 미국과 인터내셔널 팀의 남자골프 대항전인 프레지던츠컵에서도 좋은 기량을 보여주며 새해 활약도 관심을 끌고 있다.

그와 새해 첫 라운드를 함께할 스피스는 메이저대회 3승을 포함해 통산 13승을 올린 스타로, 지난해 4월 RBC 헤리티지 이후 약 9개월 만의 우승을 노린다. 스피스는 2016년 이 대회 정상에 오른 경험도 있다.

지난해 우승은 없었으나 꾸준한 경기력으로 투어 챔피언십까지 진출했던 임성재(25)는 2022-2023시즌 개막전인 지난해 9월 포티넷 챔피언십 우승자 맥스 호마(미국)와 함께 6일 오전 7시 5분부터 1라운드에 나선다.

작년 5월 AT&T 바이런 넬슨에서 정상에 올라 대회 2연패와 투어 2승을 수확했던

이경훈(32)은 지난해 3월 코랄레스 폰타카나 챔피언십 우승자 채드 레이미(미국)와 6일 오전 6시부터 동반 라운드를 펼친다.

이밖에 저스틴 토머스-샌더 쇼플리, 스킵 세플러-윌 잼러토리스, 콜린 모리카와-토니 피나우, 패트릭 캔들레이(이상 미국)-마쓰야마 히데키(일본), 온 람(스페인)-매슈 피츠패트릭(잉글랜드) 등이 한 조로 편성됐다.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는 지난해 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했거나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 올랐던 선수만 출전할 수 있는 ‘왕중왕전’ 성격의 대회다.

올해는 39명이 출전에 나흘간 컷 없이 순위를 가린다. 1라운드에선 2명이 한 조로 묶였는데, 애덤 스벤손(캐나다)이 유일하게 혼자 경기한다. /연합뉴스

이은주씨, 고흥동초 소프트테니스부에 기부금

매년 2천만원 총 1억5천만원

고흥동초등학교 소프트테니스부 선수들을 위한 기부금 1억5,000만원이 전달됐다.

4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고흥동초에 기부금을 전달한 이는 이은주씨(56)다.

이씨는 “어렸을 때부터 기부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균형 등 여러 기판도 알아봤지만 우연히 지인의 아들이 운동하는 것을 보고 고흥동초 소프트테니스부에 기부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얻고 양보하며 협력하는 정신을 배워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노훈 고흥동초 교장은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전해주시 기부금을 고흥동초 소프트테니스부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씨는 8년간 총 1억5,000만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고흥동초 소프트테니스부는 김문영 코치의 지도아래 전국체전 금메달 3개,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3연패를 기록한 소프트테니스 강호로 지난해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에서 남자초등부 단체전 우승, 4학년부와 5학년부 개인복식 1위를 기록했다. /최진화 기자



이은주씨(오른쪽)가 지난 3일 고흥동초등학교 교장실에서 박노훈 교장에게 소프트테니스부를 위한 기부금을 기탁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광주FC, 공격수 이건희 완전 영입

지난해 임대 합류 15경기 6골

광주FC가 공격수 이건희(24)를 완전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시즌 1년간 임대로 광주에 합류한 이건희는 186cm·78kg의 탄탄한 피지컬을 활용한 연계 플레이와 헤더, 날카로운 마무리가 장점인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또 적극적인 전방 압박, 투지와 헌신으로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왕성한 활동량으로 꾸준히 그라운드를 누볐으며 광주의 시즌 1호골 기록과 함께 지난해 15경기 6골 1도움을 작성하는 등 팀 상승세를 이끌었다.

아울러 37라운드 김포와의 홈경기에서 경기 종료 직전 기록한 역전골은 광주의 우



이건희

승을 이끈 촉매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광주 팬들이 뽑은 2022시즌 베스트골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건희는 “광주에서의 1년 동안 선수로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커리어하이를 만들어준 팀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 있어 정말 기쁘다”며 “팀이 1부리그에 복귀했고, 더 높은 목표를 꿈꾸고 있다. 그에 맞는 선수가 되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 동계 훈련을 통해 더 발전한 선수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조혜원 기자

KIA 양현종·나성범·이의리 태극마크

WBC 최종 엔트리 발탁 에드먼·김하성도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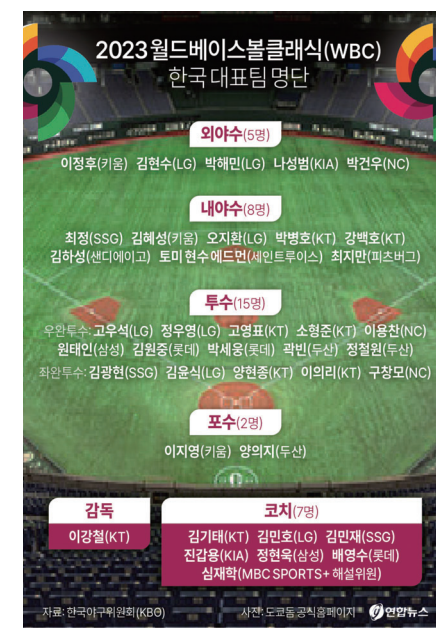
KIA 타이거즈 양현종(35), 이의리(21), 나성범(34)이 나란히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3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서울 도곡동의 야구회관에서 WBC대표팀 엔트리 30인을 발표했다. 이번 30인 명단에는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리스트인 양현종과 도쿄올림픽에서 호투를 펼쳤던 이의리가 투수 부문에 포함됐다. 야수부문에서는 베테랑 나성범이 승선했다.

아울러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최고의 수비수로 꼽히는 한국계 2루수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유격수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명단에 올랐다.

투수는 전원 KBO리그 현역 선수들로 구성됐다. KIA 양현종, 이의리를 비롯해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한 김광현(SSG랜더스), 구창모, 이용찬(이상 NC 다이노스), 김윤식, 정우영, 고우석(이상 LG트윈스), 소형준, 고영표(이상 kt 위즈), 원태인(삼성 라이온즈), 김원중, 박세웅(이상 롯데 자이언츠), 박민, 정철원(이상 두산 베어스)이 뽑혔다.

포수는 양의지(두산)와 이지영(키움)이 나선다. 외야수는 KIA 나성범과 KBO리그 2022시즌 타격 5관왕 이정후(키움), 김현수, 박태민(이상 LG), 박건우(NC)로 구성됐다. /조혜원 기자



내야수는 에드먼, 김하성, 최지민을 비롯해 최정(SSG), 김혜성(키움), 오지환(LG), 박병호, 강백호(이상 kt)가 부름을 받았다. MLB 소속 선수는 총 3명이며 KBO리그 소속 선수는 총 27명이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WBC 대표팀은 2월 14일부터 2주간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의 키노 스포츠콤플렉스에서 전지훈련을 한다. 이후 본선 1라운드 열리는 일본 도쿄로 이동한다.

한국은 일본, 호주, 중국, 체코와 본선 1라운드를 치른 뒤 5개국 가운데 2위 안에 진입하면 A조 상위 2개 팀과 일본 도쿄돔에서 8강전을 한다. 4강전과 결승전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린디포 파크에서 열린다.

한편 최종 명단 제출 마감일은 다음달 8일이며 마감일 전까지 부상 등 변수 발생 시 선수 교체 가능하다. /조혜원 기자